

Beyond the KNF

KNF 40주년,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 원자력 기 여료 기

2022

NOVEMBER + DECEMBER

VOL.164

KNF MAGAZINE

New  
Global  
Standard





COVER STORY

힘 없이 달려왔던 2022년은 우리가 걸어온 지난 40년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또 다른 역사를 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새로 올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는 지금 벽참과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KNF MAGAZINE

## 원자력 연료

2022 11+12 Vol.164

발행일

2022년 12월 12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발행인

최익수

편집실

홍보협력실 042-868-1135

기획·디자인·인쇄

반디컴 02-2272-1190

<원자력연료>는 <https://www.knfc.co.kr>의 E-Book과 App-Book '사보 원자력연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



16



20



28



34



40

### 창립 40주년 특집

미래를 위한 원자력 NEW GLOBAL STANDARD 한전원자력연료

- 04** 창립 40주년 기념사  
새로운 40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 06** 함께의 가치  
KNF 창립 제40주년 새로운 비전의 선포와 함께 내일의 문을 열다
- 10** KNF 소식
  - 창립 40주년 비전 선포 '미래를 위한 원자력 New Global Standard 한전원자력연료'
  -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경영상 대통령표창 수상
  - 2022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에서 산업부 장관상 수상
  -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획득
  - 협력회사와 품질보증업무협의회 개최
  - 협력업체 경영진 간담회 개최로 소통 강화

- 16** Theme & People  
무소의 뿔처럼 걸어온 40년 고승헌 작가의 '오로지 자연과 예술의 하나 됨을 위한 삶'
- 20** Theme & Essay  
지속가능한 직장생활의 걸림돌  
오피스 빌런에 대한 단상
- 22** Theme & Test  
더 나은 우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나르시시즘과 건강한 자기애는 한 곳 차이
- 24** My Item  
보다 쉽게 보다 착하게  
모바일로 지구를 지키는 방법
- 26** 미리 보는 2023  
계묘년(癸卯年)을 움직일 키워드와 변화들
- 28** 안전 알린이  
다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 32** 과학칼럼  
대항해시대를 연 향신료
- 34** 여행의 이유  
소복소복 사락사락 설경 예쁜 서산 여행
- 38** 문화 레시피  
2022 연말연시 우리를 들뜨게 할 영화 Best 3
- 40** 리빙 트렌드  
코로나19가 바꾼 또 다른 일상  
가족과 함께해 더 좋은 팸잼 트렌드
- 42** KNF in Cartoon  
Beyond the KNF, 미래 40년을 위해
- 44** 일상공감
  - 화가 크빈트 부흐홀츠(Quint Buchholz)
  - 생각의 힘을 읽고
  -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산업혁명을 읽고
- 48** 독자 어울터

## 창립 40주년 기념사

### 한전원자력연료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연료의 국산화를 통해 한국 원자력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한 우리 회사가 어느덧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세계 정상권의 원전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우리 회사는 경수로 및 중수로용 개량연료와 고유연료를 발 빠르게 개발하고 상용화함으로써 이를 훌륭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유의 설계코드와 방법론을 개발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자립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앞서가는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회사가 갖춘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위상은 지난 40여 년 간 쉼 없이 이어져 온 임직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불모지와도 같았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국산 원자력연료라는 역사의 새 장을 연 선배님들, 그리고 창립 40주년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역사를 써오신 선배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임직원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하에 가능한 것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직원 여러분!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회사는 새로운 40년, 그 이상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변경으로 원자력 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원전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이 상황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비전(Vision 2035)을 제시하고 핵심가치를 재정립했습니다. 임직원 모두의 꿈과 열망이 담긴 새로운 비전 '미래를 위한 원자력, New Global Standard 한전원자력연료'는 우리 회사가 기술자립과 기술고도화를 넘어 기술·안전·품질 영역에서 세계 표준으로 부상하여 글로벌 원자력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여,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기반으로 원전 최강국 도약의 주역으로 성장해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40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은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사들에게 뒤처지고 시대의 조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기업은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며 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반면, 또 어떤 기업은 그렇지 못하고 도태되곤 합니다. 우리가 40년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노사가 협력하여 공정과 청렴으로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혁신으로 무결점 고품질의 연료를 개발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통해 한전원자력연료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뜻을 모읍시다.

임직원 여러분, 지금의 우리 회사를 일궈오신 주역이 여러분이셨듯이 앞으로의 주역 또한 여러분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애사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또 다른 도약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와 민족의 영역을 넘어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회사 창립 40주년을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 **최익수**

# KNF 창립 제40주년 새로운 비전의 선포와 함께 내일의 문을 열다

지난 11월 10일 ‘한전원자력연료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대전 본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나온 4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내일을 공유할 수 있었던 공감의 장으로, 새로운 비전의 선포와 함께 국민의 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미래를 위한 원자력, New Global Standard 한전원자력연료

이번 40주년 기념식에서의 가장 큰 의미를 꼽자면, 한전원자력연료의 내일을 가능해보고 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할 새로운 비전의 선포에 있다. 이번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새로운 비전은 ‘미래를 위한 원자력, New Global Standard 한전원자력연료’로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혁신성장을 추구하고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원전 최강국 도약의 주역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념식 초반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엄숙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으며, 기념식장에 모인 임직원들이 애국가를 합창할 때에는 모두가 한마음 된 듯 결연함마저 감돌았다. 이어 모범직원상 및 공로상에 대한 표창장 수여부터 장기간 근무에 대한 근속패 수여까지, 그간 우리 사회와 회사를 위해 경주해온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40주년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우리 회사의 지나온 40년 발자취를 고스란히 기록한 사사(社史) ‘한전원자력연료 40년사’의 발행을 기념해 전달식을 가졌다. ‘한전원자력연료 40년사’에는 우리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관계자들의 심층 인터뷰와 고증 등 객관적 사실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생생하게 담겼다. 아울러 국내 핵연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구·학습서로서의 가치까지 담아냄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것

우리 회사는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묵묵히 걸어온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40년을 그려볼 수 있는 터닝포인트로 삼았다. 동시에, 임직원 모두가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최익수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과 구성원의 안전을 최

우선에 두고, 40년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도약기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어 글로벌 시대의 표준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해 기념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밖에도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보다 널리 알리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대외 행사 및 홍보 요원으로 활동할 홍보대사 2인을 선정해 위촉식을 가졌다.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료설계실 설계부 박한얼 씨와 인사노무처 노사협력부 강수정 씨는 “이번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면서 “우리 회사의 다양한 표정을 알릴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로,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꾸준한 도약을 일궈왔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의 발표는 무결점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약속하고 있다.

**New VISION**

미래를 위한 원자력,  
**New Global Standard 한전원자력연료**

**미래를 위한 원자력**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지속가능성장 추구

**New Global Standard**

미래기술, 안전 품질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도약하여 글로벌 원자력 시장 선도

**CORE VALUE**

**Safe FUEL 안전한 연료**



**Safe 안전 최우선**

- 국민과 구성원 안전 최우선
- 최고 수준의 안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장 실현 및 발전



**Fairness 공정/청렴, 윤리**

-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실현
- 구성원 간 화합, 소통 지향



**Utmost Specialty 최고 전문성**

- 전문성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지향
- 무결점, 고품질의 연료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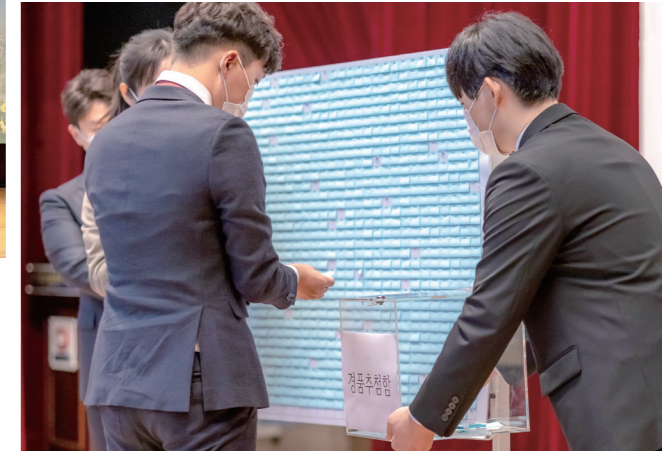
**Eco-friendly 환경 친화**

- 환경친화적 원자력연료 공급
-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자력연료 공급



**Leading Future 미래 선도**

- 끊임없는 혁신 추구
- 미래 변화를 주도
- 유연하고 창의적 사고로 독창적 미래기술 선점



**홍보대사 2인  
 Mini interview**



**박한열 연료설계실 집합체설계부**

홍보대사는 외부 기관에게 회사 전체를 대표하며, 저희의 래도가 회사 전체의 인상을 대표하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임하는 래도와 단정한 품행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자력이 중요시되는 현재가 저는 물론 회사 모두에게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수정 인사노무처 노사협력부**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한 에너지 '원자력'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고,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 한전원자력연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 창립 40주년 비전 선포 '미래를 위한 원자력 New Global Standard 한전원자력연료'



우리 회사는 11월 10일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 '미래를 위한 원자력, New Global Standard 한전원자력연료'를 선포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은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혁신성장을 추구하고,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원전 최강국 도약의 주역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 근속자 근속패 수여, 공로상 포상, 사사봉정식이 이루어졌으며, 뒤이어 비전선포식이 진행됐다.

최익수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과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40년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한전원자력연료의 새로운 도약기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어 글로벌 시대의 표준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경영상 대통령표창 수상



우리 회사는 11월 23일 킨텍스에서 열린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인 '국가품질경영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 현장에서 탁월한 품질경영 활동으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포상하는 자리이다.

우리 회사는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과 현장중심 경영을 통한 품질 역량 제고는 물론, 회사 고유의 생산혁신시스템인 KIPS(KEPCO NF Innovative Production System) 고도화에 따른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및 고품질의 핵연료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높이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각종 국제표준인증인 ISO 9001(품질경영), ISO 14001(환경경영), ISO 45001(안전경영), ISO 27001(정보보호), ISO 37001(부패방지) 등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수준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다.

최익수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연료 안전성과 품질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효율적인 품질혁신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으로 지평을 넓혀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2022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에서 산업부 장관상 수상



우리 회사는 11월 23일 서울 제2롯데타워 SKY31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기술사업화 유공자 시상식에서 기술나눔 부문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술사업화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연례행사로, 기술사업화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관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우리 회사는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간 기업으로 보유 기술을 이전하고 미활용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기술나눔 이외에도 '동반성장 지원기동반' 운영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 및 현장교육 실시, 중소기업 개발기술 유출방지와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任置)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익수 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협력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 및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획득



우리 회사는 11월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공동주관 하에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제도가 신설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에너지토피아 봉사단을 중심으로 김장나눔 봉사, 과수농가 지원, 주변 지역 환경정화 활동, 노후 전기설비 개선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장터「Ready, 가치플렉스」참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푸르미 그린스쿨」조성 ▲대전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의제(장애인보호자 숲케어프로그램) 등 민간·공공 영역간 협업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익수 사장은 "우리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공헌을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협력회사와 품질보증업무협의회 개최



우리 회사는 11월 24일부터 2일 동안 원자력연료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9개 협력회사와 품질보증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협력회사의 품질활동 결과와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연료 부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토론 기회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11월 24일, 25일 양일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2022년도 협력회사 품질 활동 평가 결과 공유 및 품질 활동 우수 협력회사 시상 등이 이루어졌으며, ▲ 협력회사가 함께하는 원자력 품질수준 제고 추진방향 ▲ 차세대 스마트 품질증빙서류 검증 시스템 설명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 한전원자력연료 TSA 공장 튜브제조 공정 투어가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연료 부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회사와 품질보증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부품 품질향상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간담회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 협력업체 경영진 간담회 개최로 소통 강화



우리 회사는 10월 26일 사내 회의실에서 (주)진영정기를 비롯한 9개 협력업체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자력연료 부품 공급기업인 협력업체와 상호 관심 사항 등에 대한 논의로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ESG경영 실천 업무 협약' 체결을 비롯하여, 'KNF 동반성장 프로그램' 소개, '원자력연료 부품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회사는 원자력연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고가(高價)인 원자력연료 부품 원자재의 사급 ▲생산계획 사전 공유 ▲주문서 조기 발주 등 원자력연료 부품공급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구현을 위하여 '동반성장 지원기동반'을 설치해, 재무, 구매·자재, 품질보증, 품질관리, 설계기술, 부품개발, 해외사업 등 7개 분야에서 상시 관련 업무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납품 후 5일 이내 전액 현금결제 시스템 운영과 선금급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최고 70%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연료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 성과공유 품목 개발 소요금액의 50% 지원과 개발 완료 후 3년 이내 개발품 우선구매 혜택 등을 통한 성과공유제 실시,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익수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에너지 부족 사태에서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품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준 협력업체 경영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원자력연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 및 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무소의 뿔처럼 걸어온 40년 고승현 작가의 ‘오로지 자연과 예술의 하나 됨을 위한 삶’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자연에서 신앙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예술과 자연의 상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고승현 작가. 그가 사는 세상은 자연에 귀속된 삶이고 여행이다.



### 자연미술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

겨울을 앞두고 있던 11월 어느 날, ‘자연미술 개척자’로 불리는 설치미술가 고승현 작가(66)를 만나기 위해 전시 막바지에 접어든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현장을 찾았다. 공주 연미산 중턱에 위치한 비엔날레 현장은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꽤 흥미로운 곳으로, 작품들 모두가 하나같이 자연에 스며든 듯 존재를 감춘 채 어우러져 있다. 그렇게 잠시 주변을 관찰하던 중 그토록 고대했던 고승현 작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그의 첫인상은 노신사의 향기로 가득했으며, 예술가로서 걸어온 길을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그런 그의 안내에 따라 비엔날레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카페로 자리를 옮겨 궁금했던 이모저모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자연미술은 어떻게 시작됐는가?’로 시작한 질문에 그는 “대학에서 한국화로 석사학위까지 마쳤고, 그 후 어떤 예술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라면서 지나온 40여 년을 곱씹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연미술의 시작은 그가 1981년에 동료들과 만든 ‘야외현장미술연구회’라는 모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예술의 근원을 탐구하면서 서부터 더욱 깊은 경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명 이전의 원시적 예술에 그의 시선이 고정된다.

“그때의 생각과 관심, 그리고 환경이 자연이라는 데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예술의 새로운 출발점을 자연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화라고 하면 동양사상이 밀바탕 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가 바라본 자연은 공통분모가 꽤 많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자연미술이라는 전혀 새로운 예술은 제도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생소한 분야였고, 가르침을 줄 스승이나 기준점도 없었다. 그렇게 그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자연미술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자연미술**

‘그렇다면 과연 자연미술이란 무엇일까?’라는 스치듯 지나가던 궁금증을 놓치지 않고 질문했다. 이에 그는 자연미술을 ‘되기’, ‘잇기’, ‘숨쉬기’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하든 자연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미술은 자연 본래의 형상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한 행위이며, 자연의 안과 밖을 이어줄 ‘소통과 공감의 창(잇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쉬기’는 인간이 태어나고 돌아갈 자연에서 안식을 찾는 일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그가 추구하는 작품세계에 대해 알게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다양한 작품들이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곳곳에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하나같이 자연으로 돌아가 안식할 수 있도록 배려된 재료들로만 만들어져 있다. 비엔날레의 주제 ‘또, 다시야생’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다.

고승현 작가는 삶의 한 부분인 예술이라는 분야를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그런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은 그의 작품 ‘가야금 연작’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가야금 연작은 고승현 작가가 2002년부터 몰두하고 있는 작품으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가야금 재료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잘려나간 나무, 아니면 태풍에 전도된 나무다. 이 같은 나무들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는 이유는 나무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함으로, 울리고 사라지는 가야금 소리가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대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예술계가 주목한 자연미술**

대한민국, 그것도 공주 금강에서 태동한 자연미술은 1989년 독일 함부르크대 미술관에서 연 ‘야투-아카이브’ 전시를 계기로 세계에 그 모습을 알렸다. 당시 독일의 작가들은 자연에 기대 활동하는 ‘야투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만큼 성공적이었다.

“서양인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술 분야로 보면 자연을 작품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작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자연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예술로 승화시켰으니까요.”

자연미술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고승현 작가의 무대는 점차 넓어졌다. 지금은 그의 작품세계를 동경하는 해외의 많은 작가들이 그와의 협업을 희망한다. 한편 독일 활동 후 2년 뒤인 1991년 독일 작가 31명이 금강을 찾았고 자연미술을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10여 개국 34개 예술단체가 한국자연미술가협회인 야투를 중심으로 자연미술에 동참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작가들은 원시적 아름다움과 창작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본능에 따른 나와 자연 간 관계를 만드는 작업 위주로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14년 한국에서 출발, 인도(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란(2016년), 터키 외 유럽 7개국(2017년), 영국(2018년), 이탈리아(2019년) 등 해외 각국에서 작가들이 작업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코로나19의 여파로 활동이 주춤해 아쉬움이 컸다. 그렇게 수년을 기다려온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최근 다시 기지개를 펴고 더 큰 무대를 준비 중이다.



**예술가로 40년, 다시 미래 40년을 위해 준비하다**

예술가로 살아온 삶만 40년이다. 이런 그에게도 고민이 있다. 그중 가장 큰 고민은 자연미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다.

“후배들이 자연미술을 이어가길 바라는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작품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함께 있어 어려움이 있고, 그 부담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죠. 따라서 과연 이 활동을 이어갈 후배들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는 본인도 마찬가지였다. 덕분에 아내의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지켰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그는 “작가들이 예술활동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순수예술에 투신하는 작가들이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한다.

그래서일까? 현재 40주년을 맞이한 그는 오늘 더욱 분주하다. 또 자연미술의 종주국인 우리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미술관 건립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물론 쉽지는 않으나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힘써볼 각오로, 자기 자신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다.

한편 그는 2016년 사회적협동조합 ‘자연의 소리’를 결성했다. 자연의 소리는 전문성을 갖춘 젊은이들이 자연미술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으며, 순수 예술인들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우리 예술계를 위해 힘써줄 젊은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와 자연미술, 그리고 자신의 활동을 기록할 40년사의 발행도 준비 중으로 다양한 활동과 의미들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mini interview**

**Q 1960~70년대 미국의 'land art'와 어떻게 다른가요?**

대지미술은 인공물로 섬 전체를 덮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방식의 창작이고, 인간의 의지로 만든 포장 속에 삶과 자연이 가려지죠. 그것은 삶의 매물이고 반생태적이라는 부분에서 다릅니다.

**Q 예술가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고비는 없었나요?**

수없이 고비를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이겨냈고, 신앙도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Q 자연미술로 탄생한 작품들은 결국 자연으로 회귀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다른 미술과 달리 소멸성이 강한 게 자연미술의 다른 점입니다. 대신 기록을 통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진과 영상 등의 미디어로 말이죠.

**Q 지금까지 한길을 걸어올 수 있게 도와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식당을 운영하며 저의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와 가족, 그리고 동료 선후배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속가능한 직장생활의 걸림돌 오피스 빌런에 대한 단상

얼마 전 대학 동기로부터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라는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의 연락이라 흔쾌히 수락 후 퇴근과 함께 약속장소에 도착하니 뜻밖의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가 앞날이 보장된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직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가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같은 부서에 근무 중인 오피스 빌런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주요인이었다.



📖 베스트셀러 작가 마커스 버킹엄(Marcus Buckingham)은 자신의 저서 'First, Break All the Rules(사람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유능한 관리자)'에서 직장인들이 조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연봉이나 비전보다 상사의 무관심을 꼽았으며, '유능한 동료'가 최고의 사내복지라고 밝힌 바 있다. 💬

### 나의 동료는 오피스 빌런이었다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직장의 골칫덩이)이라 하면 회사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 이들이 조직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하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오피스빌런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악의 오피스 빌런 영예의 1위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로 직원들을 괴롭히는 '갑질-막말형(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2위는 성과가 좋으면 내 탓, 안 좋으면 남 탓하는 '내로남불형(13.5%)', 3위는 맡은 직무에 소홀하면서 월급만 가져가는 '월급루팡형(13.4%)'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공공의식이 부족한 '사무실을 내 집처럼형(7.9%)'과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핑거 프린스·프린세스형(7.4%)'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에게 '본인 스스로 오피스 빌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느냐' 묻는 설문에는 82.1%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스 빌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티 안 내고 무시'한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적당히 선을 유지하고 자극하는 말과 행동은 일절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3.1%, '그의 말 또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0.0%였다.

### 오피스 빌런과 차별되는 오피스 보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겠지만, 동료들과의 어울림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며 업무의 일환 중 하나다. 또한 직장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매너를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오피스 빌런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동료를 '오피스 보살'이라고 부른다. 오피스 보살이라

불리는 이들은 사내 에티켓의 준수 그 이상의 것들을 실천하는 동료들로 다양한 유형이 있었으며,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1,0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은 업무 요청 또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는 동료인 '친절왕형'이 19.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 시 실수 없이 일 처리가 깔끔하고 정확한 동료를 뜻하는 '알파고형'이 18.1%로 2위를, 업무 기한이나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동료를 나타내는 '칼타임형'이 15.5%로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사성이 밝은 '만반잘부형'이 9.5%로 4위를, 정보 습득에 능하고 공유를 잘해주는 '사내피셜형'이 8.5%로 5위를 차지하며 직장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오피스빌런과 오피스 보살은 상대적으로 그 경향이 뚜렷하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나의 유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아보는 것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 오피스 빌런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

오피스 빌런은 회사 운영에 부담을 주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오

피스 빌런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실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면, 오피스 빌런을 방지할 경우 다른 직원 및 동료들에게 전염되어 회사 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유능한 직원의 퇴사 가능성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자신의 사설을 통해 "기업이 오피스 빌런 문제에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오피스 빌런이 아닌 올바른 사고관을 가진 직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오피스 빌런들 역시 조직 내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다양성의 일부로 배려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개인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조직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오피스 빌런을 상대해야 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다. 먼저 가해자와 피의자 등의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기보다는 상황, 시점, 여건 등 다양한 주변 요인들을 함께 살피고 동시에 평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더 나은 우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 나르시시즘과 건강한 자기애는 한끗 차이

사람은 저마다 성향과 성격이 다르며, 그 스펙트럼도 가지각색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도 다양한데, 건강하게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 장애'라 일컬을 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오직 '나 자신'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그들을 우리는 나르시스트(narcissist)라고 부른다.

### 수선화가 된 미소년 나르키소스

나르시스트(narcissists)와 함께 거론되는 단어에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이 있다. 나르시시즘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케가 1899년에 만든 단어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자기와 같은 이름의 꽃인 나르키소스, 즉 수선화가 된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일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탄생한 정신분석학 용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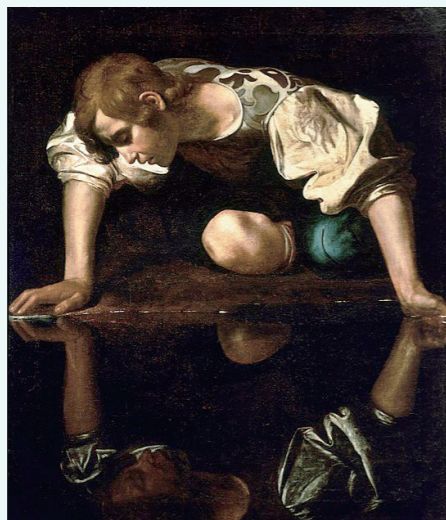
무심히 보면 '자기애'와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공통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히 각각의 성향을 구분하는 지표가 따로 존재할 만큼 두 단어의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

그 지표는 '비판에 대한 공감 여부'로 그 경계를 구분지을 수 있다. 설명을 보태자면 타인이 자신의 언행을 지적했을 때 단순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의 경우는 개선 여부가 있고, 나르시스트의 경우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분노하지만 결국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나르시스트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자신의커리어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나 또는 자랑 거리로 삼는 이들을 지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상당히 복잡한 성격 장애로서 자기애와 자존감이 높은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나르시스트, 어쩌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자기애성 인격 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NPD)는 자기애를 넘어 정신적 장애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며 증세



narcissus

도 다양한데, 임상학적으로 나르시스트라고 구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르시시즘 증세의 일부만 드러내 보이는 사람도 있다. 한편 심리학자 크랙 말킨(Dr. Craig Malkin)은 상대방이 나르시스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가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 증세는 적극적이며 시끄러운 사람, 내성적이며 조용한 사람, 자기의 희생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공통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나르시스트는 자기의 진정한 감정을 남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크랙 말킨 박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 상대방이 나르시스트인지 구별하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 첫 번째는 치밀한 계획성이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하지만 결국 데이트의 모든 과정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다음 두 번째는 과한 애정을 쏟는 유형인데, 이는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시그널로 나르시스트의 대표적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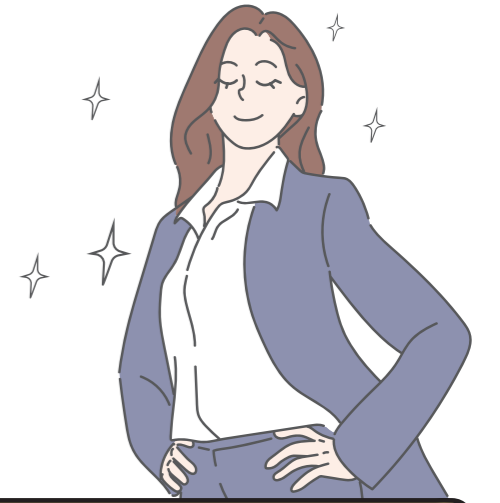
이어 세 번째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경우다. 하지만 진정한 나르시스트는 관계 초기에는 자제력이 크니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식당 점원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모든 관계가 짧거나, 상대방의 불안감을 파헤치려고 들면서 자기의 약점이나 걱정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 Check List

## 나르시스트, 조기에 알 수 있는 15가지 경고 신호

대화가 언제나 나에게 관한 것이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문제만 얘기한다.
남에게 관심이 쏠리면 불편함을 느낀다	관심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나 아닌 남이 주목을 받으면 정신적으로 불편하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	자신에게 사랑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매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르시시즘적 자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NPD를 가진 사람들은 남들에게 과장되게 매력적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한다.
남들이 내 요구를 우선시하기를 기대한다	항상 상대방보다 자신의 필요성을 앞세운다. 연인관계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란다.
나는 언제나 옳다	자기 의견을 관점이 아닌 사실로 진술한다. 자신이 항상 옳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쁘거나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 비난이나 평가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댈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 피해자인 척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나르시스트는 물질주의적이다. 높은 지위와 위신을 과시하는 것을 즐긴다. 새로 산 고가의 물건을 과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자랑한다면 이런 사람은 나르시스트일지 모른다.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다. 비판을 받으면 화를 내거나 울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보복한다면 적신호로 볼 수 있다.
나는 진짜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특별함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실이나 현실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과대망상을 뒷받침하는 환상의 세계에 살고자 한다.
주변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 깊은 질투심을 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주변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한다. 누구라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귀를 닫아버린다.
나에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강한 권리의식과 자신의 중요성만 과장하기 때문에 규칙을 무시하거나, 단순히 규칙이 자신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종종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이어진다.
공감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부족은 나르시시즘의 특징이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기를 원한다	삶도 친구도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완벽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종종 불행하고 불안조심스럽고 공허함을 느낀다.
외모에 집착한다	나르시스트들은 과장된 자의식과 완벽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외모에 과도한 신경을 쓰고 남의 외모에도 높은 기준을 설정한다.

나르시스트의 경우 정신과 치료조차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의 시작은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 보다 쉽게 보다 착하게 모바일로 지구를 지키는 방법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결합한 해결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더 스마트하고 착하게 지구를 위하다

환경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플로깅, 분리수거, 친환경 제품의 사용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이 인기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환경을 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에는 다소 생소해 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스마트하게 친환경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우리 곁에 분신처럼 함께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친환경 활동이 있다.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친숙한 기기로 친환경 활동을 보다 스마트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모바일 영수증을 받는 것. 이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의 일환으로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종이 영수증 1장당 약 3g의 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480t의 탄소 발생을 절감할 수 있으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의 일환이자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기에 최근 모바일 영수증을 통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캠페인을 독려하는 추세다.

환경부도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정', '탄소중립포인트 통합 모바일앱 개발' 등 실천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토론회 등을 통해 미래전략 마련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니 함께 동참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참여 방법과 개인별 실적 등을 일괄로 확인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통합플랫폼 '기후행동 1.5°' 모바일 앱이 있으니 활용해보자. 이 모바일 앱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기존의 앱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3종류의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기후행동 1.5°' 모바일 앱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3종류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 필(必)환경시대에 그린소비 돕는 친환경 앱들

연말이 되면 보통 올해 나의 잘못된 습관을 되돌아보고 재 정비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곤 한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생활을 위한 덕목 하나를 추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필(必)환경시대에 걸맞게 그린소비를 위한 스마트폰 내의 어플 정리를 추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하는 앱을 없애고 환경에 유리한 습관을 도와줄 앱을 새로 설치한 뒤, 자주 사용하는 앱의 위치를 앞으로 배치해 소소하게나마 전력의 소비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그린소비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하루 중 꽤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속 정보를 검색하는데 할애하는 우리에게 쇼핑과 관련한 앱들은 불필요한 소비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방식이든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탄소배출을 유발하니 쇼핑 앱을 삭제하는 것으로 탄소저감 활동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보자. 배달 관련한 앱들도 같은 맥락이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음식을 편리하게 주문하고 즐길 수 있지만, 쌓여만 가는 플라스틱 용기를 보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달 앱을 삭제하고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에 조금 더 공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소중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적극적으로 설치하길 권유하고 싶은 앱들도 있다. 먼저 중고거래 앱이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함으로써 일상에 순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는 제품의 수명은 늘리고 탄소배출은 줄일 수 있는 꽤 매력적인 방법이다. 대표적인 앱으로는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 등이 있다. 이밖에도 친환경 습관을 도와주는 앱들도 다양한데, '줍다(joopda)'와 '해피해빗(happy habit)'이라는 앱이 주목할 만하다. 먼저 '줍다'는 종이컵을 재활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로, 사용한 종이를 사진인화, 포토북, 포스터, 의류 등의 재활용 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종이컵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또 다른 시각으로 해결한다. 다음 '해피해빗'은 제휴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카페에 설치된 해빗컵을 이용하면 앱을 통해 에코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또 적립된 에코포인트는 OK캐쉬백이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앱 내에서 텀블러 및 해빗컵 제휴가 되어 있는 카페를 확인할 수 있다.

# 미리 떠나보는 2023 계묘년(癸卯年)을 움직일 키워드와 변화들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와 달리 새로운 2023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 2023 핵심 키워드는 뛰는 토끼처럼 위기도 현명하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의 키워드로 '뛰는 토끼(RABBIT JUMP)'가 제시됐다. 여기에는 2023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기에 대비해 토끼의 지혜와 총명함이 발휘됐으면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국내·외 전문가들이 2023년 새해의 키워드로 '불경기', '위기', '변화'라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격변의 시대가 예측되기도 한다.

### 평균실종 (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를 가속화했다. 이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 갈등과 분열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무난함과 적당함은 애매함으로 도태되니, 평균을 뛰어넘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 오피스 빅뱅(Arrival of a New Office Culture : Office Big Bang)

일의 풍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다. 이들은 회사보다 개인의 삶, 급여보다는 복지, 자발적 사직, 프리랜서 열풍의 시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회사는 새로운 조직 철학을 만들고 개인은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며 상호 신뢰와 소통력을 키우라고 조언한다. 한편 빅뱅의 시대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체리슈머(Born Picky, Cherry-sumers)

한정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를 이르는 단어 '체리슈머'는 필요한 만큼만 딱 맞춰 구매(조각)하거나,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공동구매 등 실속적인 소비를 통해 절약을 꾀한다.

### 인덱스 관계(Buddies with a Purpose : Index Relationships)

인덱스 관계는 '만들기', '분류하기', '관리하기'의 3단계로 나뉜다. 만들기는 과거처럼 학연·지연 같은 인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완전히 우연에 기대는 '랜덤' 방식으로 형성된다. 둘째, 이렇게 관계를 만들고 나면 그 친분을 분류한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한 만큼 그 관계의 친소도 매우 복잡하다. 다시 말해 관계의 중요도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면서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중요해졌다. 마지막은 관계를 관리하는 단계다. 분류된 관계에 붙여진 인덱스를 떼다 붙였다 하기를 반복하며 관리해나간다.

### 뉴디맨드 전략(Irresistible! New Demand Strategy)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소비자는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이나 상품에 지갑을 연다. 이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 '뉴디맨드 전략'이다. 뉴디맨드 전략은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뉴디맨드 전략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디깅 모멘텀(Thorough Enjoyment : Digging Momentum)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디깅 모멘텀'이라고 한다. 디깅 모멘텀은 단순히 취미 생활에 대한 트렌드가 아닌,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자아'를 찾으려는 열정 가득한 노력이자,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행복 전환점을 찾으려는 삶의 매진이다. 디깅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취미·키덜트(kid+adult) 등 관련 산업도 함께 크고 있다. 나아가 디깅러들의 '입소문힘(viral power)'이 강해지면서 일반 산업에서도 이들의 마케팅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 알파의 시대가 온다(Jumbly Alpha Generation)

'알파세대'가 주목받고 있다. XYZ까지 알파벳을 소진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의 알파는 밀레니얼 세대를 부모로 둔 만 0~10살의 아이들을 뜻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친구들과 놀이 등 많은 것을 잃어버린 세대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세대인 '알파세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알파세대는 자기중심성이 강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믿는 까닭에 모두가 스스로를 셀러브리티(celebrity)이자 아키텍트(architect)라고 여긴다.

### 선제적 대응기술(Unveiling Proactive Technology)

살면서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등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기 전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선제적 대응기술'이다. 삶의 각종 편의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 공간력(Magic of Real Spaces)

잘 꾸며진 공간은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로 붐비기 마련이다. 실제 공간은 단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터전이다. 아무리 정교한 가상공간이라도 실재를 이길 수는 없다. 소매의 종말이 언급되는 시기지만 매력적인 콘셉트와 테마를 갖추고 '비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은 리테일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 네버랜드 신드롬(Peter Pan and the Neverland Syndrome)

어른 되기를 늦추거나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이다. 모두가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 이른바 네버랜드의 피터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젊음을 미화하고 이상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어른을 만나기 힘든 요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청춘의 열정과 어른의 지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다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난 중대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처벌 대상

### » 개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 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법의 직접적인 배경은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면서입니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하여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 1)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 미적용

#### 2) 중대시민재해

-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일어난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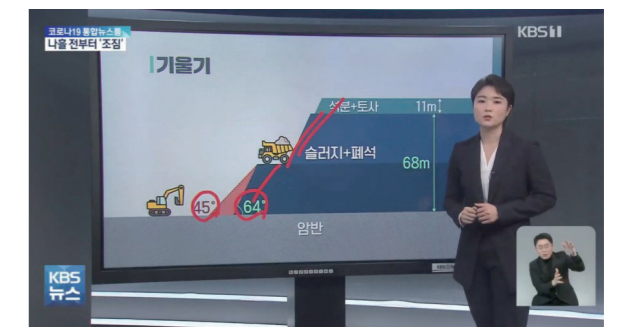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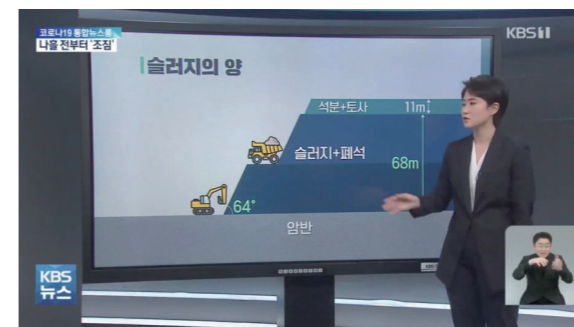
### »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2일 뒤인 1월 29일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천공기 2기와 굴삭기 1기가 매몰되고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입건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되면서 “중대재해법 1호 수사”대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사고 4일 전부터 이미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대표이사는 증거인멸 시도까지 나선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첫째, 채석장에 쌓여있던 폐기용 흙, 즉 슬러지의 과도한 하중”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 채석장에는 슬러지와 폐석이 무려 60m 넘게 쌓여있었고 수분이 많은 슬러지가 쌓이다 보니 지반이 불안정해진 이유였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급격한 기울기”입니다. 물기를 머금은 슬러지가 쌓여있을 경우 45°C 정도의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사고 2일전부터 64°C까지 가파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2020년 8월에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매몰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이것을 유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면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결국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 ▶ 여천NCC 폭발사고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누출 시험) 도중 폭발 사고로 인해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열 교환기는 진공 상태인 내부 배관에 에틸렌 등 화학 물질이 지나가면서 냉각이 되는 구조로 2월 10일 1차 시험가동 후 11일 2차로 내부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내부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덮개가 제대로 잠겨있지 않아 폭발하면서 15m가량 튕겨 나가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현장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 교환기 기밀시험이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감독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이 미 실시 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노동청에서 여천NCC 소속 4개의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1,117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619건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사법조치되었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9,630만 원)을 받으면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을 보여 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 ▶ 대전현대아울렛 화재사건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으로서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사결과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자들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 업체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지만,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긴급점검 결과 207곳 중 87곳(42%)에서 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상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소화기의 경우에도 압력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아울렛 화재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수칙을 지켜 제2의 현대아울렛 화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 마무리

올 한 해 일어난 사고 중 대표적인 3개의 사례를 찾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 원인에 대해 찾아보면 모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안전수칙 미 준수 등과 같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수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작업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치 사항들에 대해 준수하여 개선을 하고 작업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닌 작업 시작 전부터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조치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대항해시대를 연 향신료

향신료(香辛料)는 음식에 향과 맛을 내어 식욕을 촉진하는 식물성 물질이다. 대표적 향신료는 고추, 후추, 정향(clove), 너트메그(nutmeg), 마늘, 겨자, 계피 등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대표적 음식이라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방마다 김치 맛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양념의 주성분인 고추의 질과 양의 배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추는 열대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멕시코 유카탄반도가 원산지이다. 우리나라는 조일전쟁 때 일본을 통해 서양고추와 담배가 전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배추나 무를 소금에 절여서 섭취했다는 것인데 현대인은 그런 음식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향신료는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바스쿠 다가마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까지의 항로를 개척한 것, 마젤란의 세계 일주 등 목적의 하나가 향신료를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향신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점은 고대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인데 그 당시 귀중한 향신료는 인도산 후추와 계피로 무역 품을 타고 인도양을 건너 홍해를 북상해 이집트에 이르는 항로가 이미 개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에는 이슬람교의 강력한 팽창으로 유럽은 아랍 상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향신료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중요한 향신료인 정향과 너트메그는 모두 몰루카 제도의 특산품으로 원거리에서 오는 수송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칼리프(calif) 또는 술탄(sultan)의 과도한 관세로 향신료는 유럽에서 매우 고가였다. 후추는 은과 같은 가격으로 화폐로 통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향신료는 귀족이나 부호가 아닌 일반 서민은 사용할 수 없었다. 왜 향신료가 유럽인에게 절대적 인기품목이었을까?

교통이 불편하고 냉장시설이 없던 당시의 유럽 음식은 소금에 절인 저장육이 주식이었고 생선을 절여 말린 것으로 향신료 없이 먹기가 매우 곤란했다. 또한, 향신료는 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악풍(惡風)에 있다고 믿었는데 악풍이란 썩은 냄새를 말한다.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환자의 집에 후추를 태워 소독했다는 기록이 있다. 향신료는 어느 정도 약효가 있고 소독 효과가

있어 현재에도 한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타 악마와 귀신을 쫓는 약으로도 사용되었다. 향신료는 미약(媚藥)으로도 사용되었다. 향신료의 성분과 호르몬의 상관관계는 현대 의학에서 분명하지 않으나 당시 유럽인들은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귀중한 향신료 무역을 이슬람으로부터 탈취하려고 15세기 말부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원양항로의 개척에 나섰다. 대항해시대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그 첫 주자는 이탈리아 출신의 콜럼버스였다. 콜럼버스는 13세기 말,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17년간 머물면서 중국, 서아시아 등지를 여행한 이야기를 귀국해 쓴 『세계의 불가사의』란 책을 바탕으로 후에 루스티첼로가 저술한 『동방견문록』의 영향을 받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깨달았다.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면 세계 일주가 가능하며 중국, 인도에 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또 지중해를 장악한 오스만 제국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에스파냐의 이사벨 1세 후원으로 1492년 8월 리스본을 출항해 70일간의 난항 끝에 현재의 바하마 제도에 상륙했다. 그는 그곳이 인도라고 믿었다. 훗날 이곳을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그곳에서 향신료를 구할 수 없었다.

본격적으로 향신료를 구하기 위한 원양항로의 개척자는 포르투갈 출신의 항해자 바스쿠 다가마였다. 그는 1497년 4척의 범선과 170여 명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끌고 리스본 항구를 출발해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진을 계속하고 희망봉을 돌아 다음 해인 1498년 5월 인도 캘리컷 항구에 닿을 내렸다. 실로 대장정의 험난한 여정이었다. 바스쿠 다가마는 그곳의 영주를 만나 향신료를 얻기 위해 유럽에서 가지고 온 상품을 보이며 물물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의 상품 질이 조악하고 종류도 많지 않아 상담은 실패했다. 당시 인도의 면직물은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인기품목이어서 유럽의 직물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빈손으로 귀국한 바스쿠는 정상적인 상담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 포르투갈 왕 마누엘 1세의 지원으로 20척의 무장된 대선단을 이끌고 1503년 7월 리스본을 떠나 인도로 향했다. 그는



이슬람과 힌두 연합함대를 격파하고 인도에 도착해 주민을 살해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많은 상품을 약탈했다. 후추 1,700t, 계피와 말린 정향 등 향신료를 싣고 귀국해 큰 이득을 남겼다. 포르투갈은 이를 계기로 인도에 상무관을 설치하고 인도 무역을 70년간 독점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신료 무역을 이슬람으로부터 탈취하려고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의한 원양항로의 개척이 시작되었으나 양국의 향신료 획득을 위한 경쟁은 결국 동방으로 향한 포르투갈의 승리로 끝났다. 그 후 포르투갈은 몰락하고 17세기부터는 네덜란드가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1650년을 전후하여 향신료 매매 경쟁은 완만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 신대륙에서 고추, 바닐라, 올스파이스(allspice) 등 새로운 향신료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추는 매운맛이 후추를 능가하고 온대 지방에서도 재배가 되었으며 올스파이스는 계피, 정향, 너트메그의 세 가지 맛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커피, 엽차, 코코아 등 기호품도 이 시기부터 널리 애용되어 향신료의 인기는 점차 식어갔다.

고대 로마 시대에 알려진 향신료는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기까지 거의 2000년을 두고 유럽인에게는 특별한 보조 식품이었다. 당시에는 육류나 어류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로 말리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어서 맛도 없었기 때문에 향신료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유럽에 없는 향신료를 구하기 위한 수단은 오직 인도나 서남아시아로 원양항로를 개척하는 방법이었고 이는 대항해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 소복소복 사락사락 설경 예쁜 서산 여행

소복한 눈 위에 첫발자국을 내며 숲길을 오른다. 눈 쌓인 바닷가를 걷고 성곽도 노닌다.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에 마음이 열리고, 파란 바다 위로 하얗게 쏟아지는 눈들에 시선이 트인다. 우리나라는 계절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12월엔 서해안에 2월엔 동해안에 많은 눈이 흩뿌려진다. 그래서 찾았다. 계절의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12월의 서산으로.

눈꽃이 수북하게 핀 개심사 언덕

## 풍경 고운 절집, 개심사

때로 눈은 모든 풍경을 지운다. 색채도 지운다. 대신에 오롯이 눈꽃뿐인 세상을 선물한다. 그 세상이 울창한 소나무 숲 위, 아늑한 산세에 폭 쏟아진 산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다. 개심사가 딱 그런 곳이다. 인위적으로 치장하지 않아 이름처럼 '마음을 열게 한다'는 개심사는 풍경이 참 고운 절집이다. 단청 빛바래 단

아한 대웅전으로도 곱고, 못난 나무를 기둥으로 삼아 지은 심검당 아늑한 뒷마루로도 곱다. 또 이 모든 풍경을 오목하게 꺼안은 연못으로도 곱다. 특히 '지금 여긴 대놓고 겨울이요'라는 듯이 오동통하게 핀 눈꽃들로 찬란하다. 난분분 난분분 푸지게 내리는 눈으로도 눈부시다. 그래서일까, 아이들 중 누군가는 때때로 "눈이 감긴다"며 장난스레 웃는다. 개심사의 눈꽃들은 그렇게 자꾸만 내리고 자꾸만 눈부셔 차라리 눈을 감고 마는 환희에 가깝다.

오래 바라보면 괜히 황홀해져 입마저 눈꽃처럼 빙글고 마는 아늑하고 특별한 그 시간이 매해 겨울 그토록 개심사를 잃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참 설레는 '주범'이다.

소소한 볼거리가 준비해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도 개심사엔 많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안양루의 현판과 해우소, 산신각이다. 투박한 글씨로 거친 듯 굳세게 써내려간 안양루의 현판은 해강 김규진 선생의 작품이라 귀하고, 해우소는 문이 반쯤만 있어

재미있다. 절의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한 산신각은 개심사의 숨겨진 조망 포인트. 이곳에 서면 송림과 고목 사이로 개심사와 그 너머의 내포 땅이 한눈에 들어온다.

### Travel Info

주 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여행 팁 진입도로의 제설작업이 더딜 수 있으니 방문 시 주의 필요



- ① 단청이 바래 더 단아한 개심사의 대웅전
- ② 봄철 개심사의 명물인 겹벚꽃나무
- ③ 평지성 특유의 허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해미읍성
- ④ 일부가 아직 물에 잠긴 유두교의 모습
- ⑤ 해안을 따라 탐방로가 놓인 웅도

## 여백 많은 성, 해미읍성

조선초기에 지어진 해미읍성은 평지성으로 해미읍소재지에 있다. 덕분에 눈이 내리면 서산 땅 어디보다 접근하기 쉽다. 큰 도로 바로 곁에 있어 제설이 빠르고, 읍성 내부 관람로의 제설 상태도 좋은 것. 여기에 웅한 듯 험거운 풍경까지 더해져, 겨울날 쉽게 찾아 읍성 특유의 허허로운 풍경을 누릴 수 있다. 읍성의 정문인 진남루가 첫 번째 관람 포인트다. 이곳에 서면 성 내부의 건축물들과 북쪽에 자리한 암문 부근의 숲술이 한눈에 들어온다.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눈을 맞지 않으면서, 눈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하얀 눈 풍성하게 쌓인 성곽을 천천히 걸어 읍성을 한 바퀴(약 1시간 소요) 도는 것이다. 남문에 해당하는 진남루에서 동문인 잠양루와 북문인 암문, 서문인 지성루를 거쳐 다시 진남루에 닿을 수 있다. 이후 성 내부를 느릿느릿 돌아보자.

성 내부엔 조선시대가 눈에 덮여 소복하게 담겨 있다. 동헌부터 객사, 옥사 등까지가 너른 터에 등성등성 박혀 있다. 이 중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건 단연 나무다. 읍성 내엔 크나무 두 그루가 있다. 옥사 앞에 있는 회화나무와 동헌 앞에 있는 느티나무다. 회화나무는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역사가 서려 있어 가슴을 쿵 내러앉게 하고, 느티나무는 그 풍성한 가지들로 푸진 눈꽃을 이고 있어 탄성을 일게 한다. 시인 나희덕이었다. ‘해미읍성에 가시거든/회화나무와 느티나무 사이를 걸어보실 일’이라고 했던 이가. 어쩌면 시인은 두 나무 사이의 어둠과 환희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 Travel Info

주 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43  
 여행 팁 적설량이 많을 땐 성곽 트레킹보다 읍성 내부 관람 추천

## 걷기 좋은 섬, 웅도

웅도는 섬이면서 물이다. 바닷물이 빠지면 물이 되고, 바닷물이 들면 섬이 된다. 그 물목에 유두교가 있다. 유두교는 바닷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는 700여m 길이의 다리다. 그 독특한 풍경 덕에 눈 내리는 날 굳이 찾고 싶었다. 이를 테면 물에 잠긴 부분만 잿빛으로 드러나, 눈 쌓여 하얀 길과 대비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었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눈 내린 날의 웅도는 바다로 푸르렀고, 유두교로 잿빛이었으며, 눈으로 하얗다. 하지만 이 오묘해 몽환적인 풍경은 곧 과거가 된다.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유두교를 대신할 연륙교가 놓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웅도를 찾으시려거든, 연륙교가 완공되는 2025년 전에 찾을 일이다.

유두교를 건너 만나는 웅도도 매력 있다. 곰이 웅크린 형상을 닮아 웅도라는 설도 있고, 단군의 웅녀 탄생설과 연관돼 웅도라는 설도 있지만 이름이 무에 대순가. 이름보다 갯벌이 눈에 먼저 들어오니, 웅도는 그저 갯벌 속의 오아시스 같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 내해의 정중앙에 자리해 섬의 사방이 갯벌인 것. 그 덕에 한때는 바지락을 가득 실은 달구지들이 떼를 지어 갯벌을 오가기도 했다. 지금은 달구지를 대신해 경운기가 너른 갯벌을 오가고, 주민들과 체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갯벌을 오간다. 이 갯벌을 바짝 끼고 ‘해안 산책로(약 1.5km)’가 놓여 있다.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마을 끝 선착장까지 가볼 수 있는 목재 데크로, 400여 년 수령의 ‘웅도 반송’과 매섬이 곁에 있다. 매섬은 물이 빠지면 건너갈 수 있는 섬으로, 웅도에서 약 1km 떨어져 있다.

### Travel Info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1길 92  
 여행 팁 방문 전 물때 시간 확인 필수  
 국립해양조사원(www.khoa.go.kr) 스마트조석예보 참고



## 2022 연말연시 우리를 들뜨게 할 영화

Best  
3

바쁘게 걸어왔던 2022년도 어느덧 연말에 접어들면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연말연시를 보다 의미 있고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이들을 위한 핫한 극장가 소식을 들고 왔다. 특히 올해는 많은 사람이 기다려왔던 대작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울 예정이니 영화 애호가라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전 국민 사로잡을 안중근 열풍 '영웅'



영웅(Hero, 2022)

개요 드라마, 뮤지컬 | 한국 2022.12 개봉

감독 윤제균

출연 정성화, 김고은, 나문희, 조재윤, 배정남, 이현우, 박진주

해의 작품들의 강세 속에서 우리 역사와 인물을 담아낸 영화 '영웅'이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영웅은 대한민국 첫 쌍천만 관객을 동원한 윤제균 감독의 신작으로, 올해 여름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한산: 용의 출현'에 이어 흥행 계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안중근의 이야기를 세대를 초월하는 실력과 배우들의 열연과 특별한 즐길 거리로 담아낸 영화 영웅은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본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까지인 마지막 1년을 그려낸 영화다. 특이할 만한 부분은 동명의 창작 뮤지컬을 영화화한 것으로 공연 그 이상의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독립투사들의 뜨거웠던 순간들을 함께 그려냄과 동시에 한국영화의 기술력으로 작품의 완성도까지 높였다는 평가로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 그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3년의 긴 기다림의 마침표 다시 돌아온 '아바타2'



아바타: 물의 길(Avatar: The Way of Water) | 미국 2022.12 개봉

감독 제임스 카메론

출연 조 샐다나, 샘 워싱턴, 시고니 워버, 우나 채플린, 지오바니 리비시, 스티븐 랭, 케이트 윈슬렛

지난 2009년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월드와이드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바타'의 후속편 '아바타2'가 전편을 뛰어넘는 스케일로 다시 돌아온다. 3D 시장과 아이맥스 포맷의 본격적인 확장의 시발점으로 기록되는 아바타는 3D 입체 기술에 SF적 상상력을 가미시켜 만들어낸 압도적인 영상미를 자랑했다. 따라서 후속작인 아바타2 또한 전작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바타2 '아바타: 물의 길'은 전작의 시점으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후의 행성 판도라를 배경으로 하며,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나비족이 된 전작의 주인공 제이크 설리와 아내인 네이티리가 다시 대두된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족의 사랑과 성장에 대한 대서사시를 그리고 있다. 관람 포인트는 새로운 세계관에 있다. 전작 아바타가 아름다운 열대우림을 보여줬다면 아바타2는 바다에 집중했으며, 바다에 사는 물의 부족 멧케이나 족이 물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편 제작진은 이제껏 어떤 영화에서도 경험한 적 없는 수중 세계의 경이로운 비주얼과 강렬한 전투신을 예고하며 '역대급 볼거리를 선보이겠다고 자신했다.'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Black Panther: Wakanda Forever) | 미국 2022. 11. 9. 개봉

감독 라이언 쿠글러

출연 레티티아 라이트, 다니이 구리라, 루피타 뇽, 테노치 우에르타

### 세대교체의 정석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앞서 소개한 영화들보다 한 달 앞서 개봉한 영화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합당한 세대교체의 정석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2016)부터 '어벤저스: 엔드 게임'(2019)까지 블랙 팬서로 활약했던 배우 '채드윅 보즈먼'이 2020년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원래 구상했던 스토리를 전부 수정한 뒤 제작된 작품이다. 2018년 개봉한 '블랙 팬서'의 두 번째 이야기인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배우 레티티아 라이트, 다니이 구리라, 루피타 뇽 등이 출연했다. 앞서 블랙 팬서 역을 맡아 활약했으나, 2020년 세상을 떠난 채드윅 보즈먼에 대한 추모와 헌정 등을 담아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국왕이자 '블랙 팬서'인 '티찰라'의 죽음 이후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 '와칸다'. '라몬다', '슈리' 그리고 '나키야', '오코예', '음바쿠'는 각자 사명감을 갖고 '와칸다'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다. 한편, 비브라늄의 패권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음모와 함께 깊은 해저에서 모습을 드러낸 최강의 적 '네이마'와 '탈로칸'의 전사들과 고군분투한다. 한편 이번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히어로의 자아 찾기에 집중했던 전작과 달리 소중한 이들의 상실로부터 오는 허무와 분노를 묻고 살아가야 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여성들 사이 교감과 연대를 함께 투영하고 있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 코로나19가 바꾼 또 다른 일상 가족과 함께해 더 좋은 팸잼 트렌드

수많은 제약이 따랐던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는 변화된 삶에 적응하며 다양한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그중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팸잼(Fam-Zam)’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 꽤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1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남녀(여성 57.6%, 남성 55.1%) 모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던 지난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이후엔 가족이 한데 모여 취미를 공유한다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가족 중심적인 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난 게 요즘 현실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으로, ‘팸잼(Fam-Zam)’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팸잼은 코로나19 이후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가족 중심의 소비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가족(Family)’과 ‘재미(ZAM)’가 합쳐진 신조어다. 팸잼은 과거인 2020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플렉스(flax)’하던 ‘올로(yolo)’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재미와 편의를 우선시하겠다는 소비심리가 반영된 트렌드이자 키워드다.

## 코로나19 여파로 변화된 가족 중심생활



# Fam-Zam

### 팸잼이 이끈 소비트렌드에 기업들도 주목

국내 대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올해의 쇼핑 키워드로 팸잼을 선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변화된 소비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팸잼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소비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고 재미까지 더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로봇청소기와 식기세척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셀프 인테리어와 같이 집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함에 있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를 재미의 영역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가전제품과 관련한 광고들만 봐도 예전의 그것들과 달리 다양한 패턴으로 디자인 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전제품 자체가 놀이가 되는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식품의 소비도 다르지 않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정성이 깃든 음식과 달리 빠르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냉동 또는 즉석식품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전문 식당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고급 식재료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와 집에서 외식 분위기를 내려는 심리가 충돌한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취미를 즐기는 모습에서도 팸잼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게임기, 스크린, 안마의자, 프로젝터 등 가족과 함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의 약진이 이를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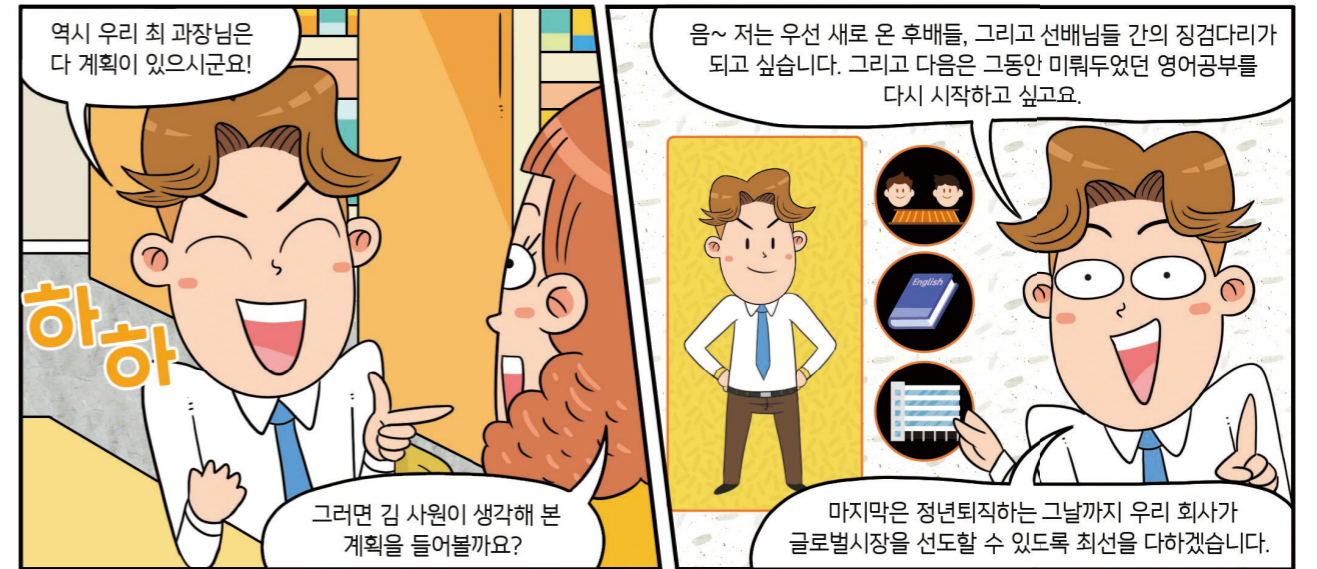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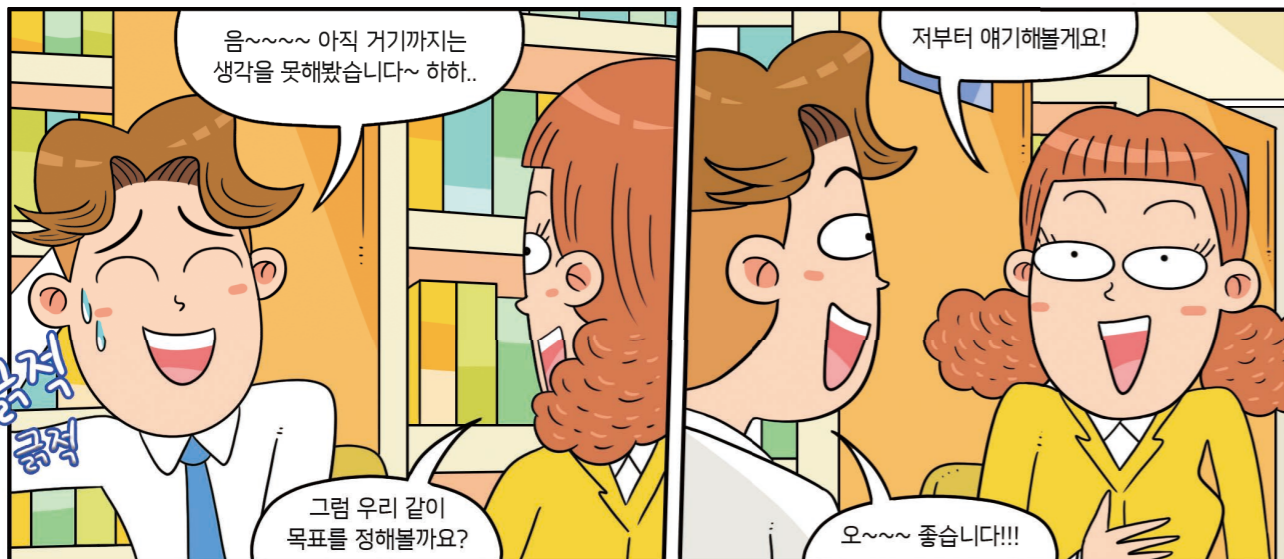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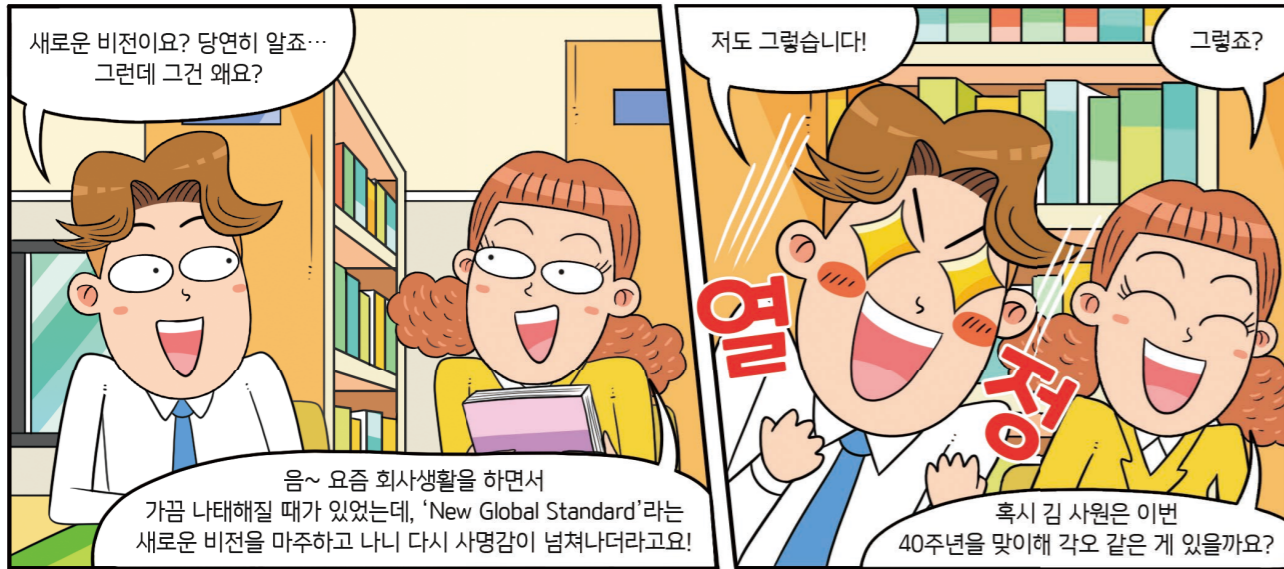


팸잼족들이 찾는 제품들의 경우 편리함을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에 따른 신조어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편리미엄’이라고 부른다.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로,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같은 팸잼 트렌드는 어쩌면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긍정적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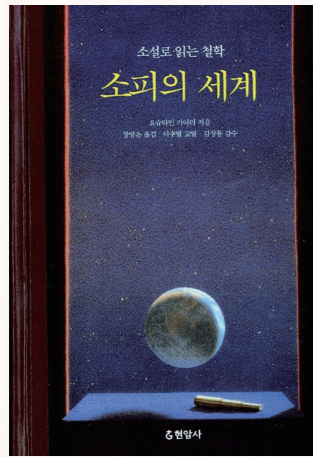
### Beyond the KNF, 미래 40년을 위해

MZ부터 베이비붐 세대까지  
함께 보면 좋은 직장인 공감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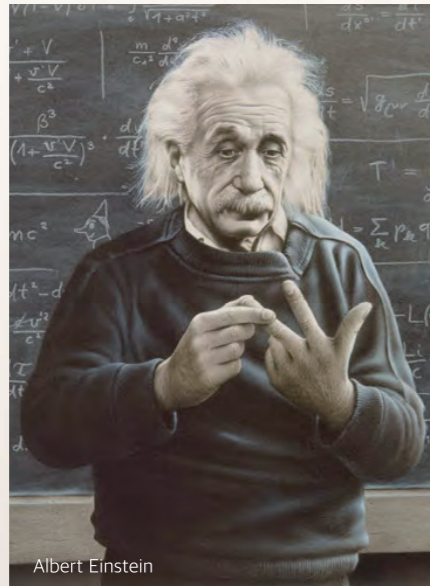
긍정  
긍정

# 화가 크빈트 부흐홀츠(Quint Buchholz)



최근에 알게된 화가가 있습니다.  
'크빈트 부흐홀츠(Quint Buchholz)'라는 화가입니다. 생소한 화가이지만 '소피의 세계'란 책의 표지를 그린 작가라면 아시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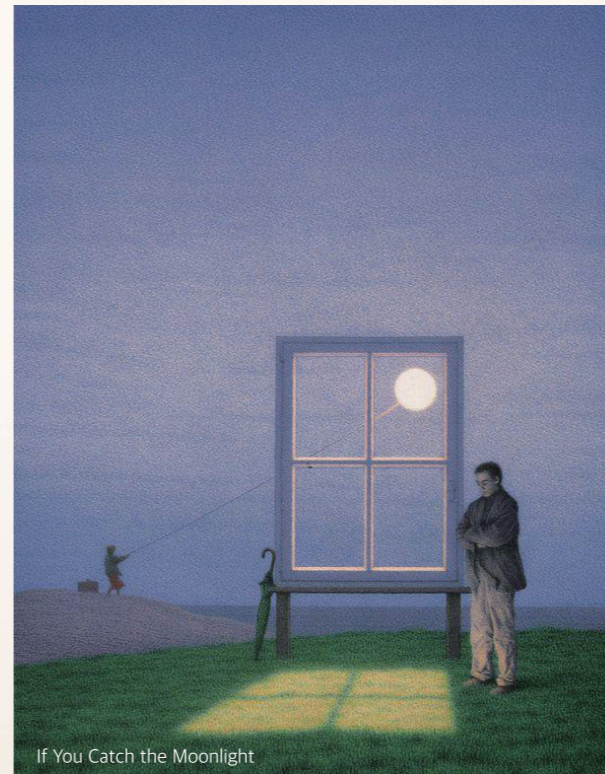
그의 별칭은 '달빛화가'인데요. 책의 표지그림처럼 달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1957년생인 독일인으로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하고 82년부터 86년까지 아카데미 조형대학에서 그림과 그래픽을 공부했고 88년부터 책의 삽화가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철학적인 상상력과 몽환적인 현실감(좀 말이 안 어울리죠^^)으로 현실을 더욱 리얼하게 표현하는 그의 그림은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영향을 받은 듯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Albert Einstein  
이런 사실적인 그림도 그렸고요.



Giacomoon  
이런 몽환적인 상상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위 그림은 아이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한 여자가 달을 잡아서 끌고가고 있네요. 남자는 창문에 비친 달빛만 바라보고 있고요. 창문 옆에는 우산 하나가 접혀져 있습니다. 집이 있고 창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창문 하나만 덜렁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창을 통해서만 달빛을 보고 있군요. 달은 예부터 여성을 상징하지요. 예전 원시공산사회는 모계사회였던 것 같고, 그 이후 고대시대부터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최근

까지 남성에 의해 정의되어 왔습니다.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지금도 많이 있지요. 그림의 남자는 남성을 대표하고 남성은 여성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창문)틀에 비춘 달그림자를 여성성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산은 접혀져 있습니다. Umbrella는 우산이란 뜻도 있지만 상부, (국가나 권력에 의한)보호란 뜻도 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이란 영화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회사 이름이 바로 Umbrella였죠. 핵우산이란 것도 핵의 무력으로 약소국들을 보호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남성이 권위를 펼치던 세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접힌 우산처럼 남성의 권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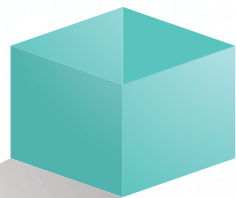
그림의 여자는 여성을 대표합니다. 여성이 스스로의 여성성을 가지려고 창문 안쪽의 틀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가서 달(여성성)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만약 저 여자가 달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의 제목처럼 저도 궁금하군요.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그냥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도 있지만 정말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정말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세상은 남성이 만든 세상이라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자신부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만... 알면서도 어렵네요.



## 「생각의 힘」을 읽고



<생각의 힘>은 이미 이루어진 세상의 규칙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다.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책은 글쓰기의 원천이 되고 글쓰기는 생각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은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젊은 층들이 온라인 글쓰기를 통해 소통하는 즐거움과 자신만의 '일상력'을 키우기 위해 글쓰기에 많이 도전하고 있다. 이들의 주제는 '나'에서 시작한다. 바쁘고 고달픈 직장생활을 하는 '나'라는 존재를 글을 쓰는 작업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글쓰기의 효과는 '몰입과 해소'이다. 차분하게 생각하며 글을 쓰고 온라인 댓글에 의한 피드백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치유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글쓰기 열풍이 일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정치사상가이자 철학자, 유대인, 여성, 난민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 세 가지로 분류했다. 노동은 인간의 생존과 욕망 충족

을 위한 육체의 동작이자 삶의 근본 조건이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노동을 해야만 한다. 작업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일의 재미와 명예를 바라며 수행하는 제작 활동으로 인공적 세계의 사물들을 제공해준다.

행위는 개인의 욕망과 필요를 넘어 공동체 속에서 어떤 대의를 위해 하는 행동이다. 인간 사이의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이며, 행위가 지닌 다원성은 모든 정치적 삶의 절대적 조건이다.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 직장에 다닌다면 그것은 노동이며, 그 일에서 나름의 보람과 재미를 느낀다면 그것은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과 작업을 넘어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행위이다. 이 세 가지 활동은 인간 실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결국 인간은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며,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유하며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책 읽기와 글쓰기는 결국 인간의 다른 여타 동물과 다른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의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이며, 노동과 작업을 넘어 행위자로서의 삶을 선사한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공부란 점수를 따고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은 없어졌다. 그저 외우고 풀면 된다. 삶은 곧 배움이고 그를 통한 성장이다. 질문없이 생각을 외우고 푸는 것은 생각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이 책은 모든 인간은 호모 콰렌스이며 결국 생각하는 힘을 통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산업혁명」을 읽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뭔가 딱딱한 경제용어인 것만 같아서 그게 뭐가 대수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 편리를 경험하며 직접 4차산업혁명의 물결 안에 직접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음을 본 책을 접하며 알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대한 인지가 없다면 그 거대한 흐름의 물살을 멋지게 파도타기 하여 원하는 성공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체감 없이 물길 속에 잠식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한다. 즉 4차산업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1, 2, 3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 본 책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알아보기 전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1~3차 산업혁명을 되돌아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은 다품종 유연생산 사회를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4차산업의 물결을 멋지게 파도타기 할 기업의 승리의 조건을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승리하는 기업의 첫 번째 조건은 "ON THE DEMAND를 기반으로 한 기업을 만들어라"이다. 예전의 구조는 물품이 정형화 되어 있고 정형화 된 물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에 가까운 쪽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니즈에 바로 맞대응하여 딱 고객이 원하는 그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생각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읽어내어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처럼 먼저 제안을 해주는 서비스를 갖추어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신속하게 만족시켜주는 기업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구성원이 다양한 기업을 만들어내라"이다.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으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만족시킬 수가 없다. IBM은 구성원이 각 분야별로 다양하도록 인종, 나이, 지역, 전공에 대한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 그래야만 다품종 유연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기업이 되고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 즉, 다양한 구성원의 하모니를 통하여 운영되는 기업을 바탕으로

로 ON THE DEMAND를 이뤄내는 기업이 진정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리딩기업이라는 화자의 말에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이러한 4차 혁명을 선도할 미래생존 가능형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할 3가지 정도의 다음과 같은 혁신전략을 구상해보게 된다.

첫째,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 내 전공분야인 이공계 분야에서 국한하지 않고 인문학 및 역사, 문화 등의 다양한 도서 계획을 세워 읽고, 최신의 주요 뉴스와 흐름이 잘 정리된 사이트나 방송에 늘 접촉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의 바다에서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혁신이 되어줄 정보를 선별해내는 인재로 거듭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에 대한 배움의 결과를 기록하여 스스로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자양분이 되도록 한다. 그러한 예로 여행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경험한다면, 경험에 기반한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을 늘 생각해 낼 수 있는 4차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이다. 셋째, 창의력을 높이기 위하여 틀에 박힌 사고 방식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 사고의 자유를 지향하고, 긍정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업무와 연관된 창의력 미션을 수행하는 것의 자기보상을 계획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전환한다. 창의력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단순히 효율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전략을 실행하여 도출되는 결과는 단지 통찰력만, 상상력만, 창의력만의 각각에 국한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결과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어 미래생존 가능형 인재가 되도록 해줄 것임을 이 책을 읽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으며, 주변의 동료에게 본 책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 한전원자력연료의 소식지 <원자력연료> 직원 참여 코너에 함께해 주세요!

한전원자력연료의 소식지 <원자력연료>는 사내 문화 형성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한전원자력연료의 비전을 전달하고 직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참여 직원에게는 푸짐한 혜택이 제공되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 대상 한전원자력연료 직원 누구나

### 참여 콘텐츠



#### Theme & Talk

인터뷰

매 호 메인 테마를 주제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일상공감

직원 기고

우리 회사 직원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 이야기를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자유 주제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함께의 가치

체험 및 인터뷰

동료, 가족, 지인(친구, 연인 등) 등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코너. 공방 체험, 베이킹 등 일일 클래스부터 활동적인 체험이 준비돼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 막걸리 만들기, 죽마고우와 사격장 체험 등

**참여 방법 방법 1** 메일(shna@knfc.co.kr)로 참여를 원하는 콘텐츠 이름과 인적사항(소속, 이름, 전화번호)을 발송

**방법 2** QR코드 스캔 후 참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콘텐츠 선택 및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



<원자력연료> 참여하기

## 스마트폰으로 <원자력연료>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식지 <원자력연료>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앱을 내려받거나 웹진 페이지에 접속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드로이드



iOS



웹진

## 재미있는 한마디

'재미있는 한마디'와 '독자의 시선'에 참여하신 분들 중 재치 넘치는 답변과 다양한 의견을 추천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엽서 또는 QR코드로 참여해 주세요. 다음 호 <원자력연료> 소식지에 실릴 예정입니다.

### 주제

연말연시가 되면서 새롭게 다가올 내일을 골똘히 계획 중이던 후배가 '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완생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후배를 위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 참여 방법

주제에 맞는 유쾌하고 재치있는 메시지를 작성해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인적사항 및 정답 기재



## 독자의 시선

<원자력연료> 독자가 보내준 소중한 의견입니다.



**송국화(전북 순창)**  
'단풍 소복소복 핀, 숲 고운 괴산 여행'을 보고 나니 몸이 들쭉입니다. 바쁘고 멀다는 이유로 아직 가보지 못한 괴산의 가을을 <원자력연료>에서 만나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 <원자력연료>를 가이드 삼아 가을로 곁게 물든 괴산으로 가보렵니다.



**김영휘(전남 여수시)**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기업 문화'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식지 속에 있는 좋은 내용을 보고 배움을 얻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사를 읽으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경기 수원시)**  
'함께 그린 청렴 Hi: Story 행사 소식'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다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청렴'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즐기고 공유함으로써 청렴 문화가 조직 내에 자연스럽게 잘 정착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